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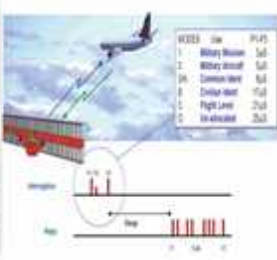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0. 7. 1.(수) 총 4매(본문2, 참고2)	
담당 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 과장 유병수, 사무관 이정윤, 주무관 정미진 • ☎ (044) 201-4356, 4363, 4364	
	서울지방 항공청	담당자	• 과장 임희엽, 주무관 임수희 • ☎ (032) 740-2101, 2201, 2206	
보도일시		2020년 7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관리
- 항공기 이착륙시설장애 실시간 모니터링…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 *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대표적으로 레이더·계기착륙시설 등이 있음

		계기착륙시설 구성  Localizer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 제공  Glide Path 항공기에 착륙각도 3° 정보 제공  Marker 항공기에 위치정보 및 결심고도 제공
레이더 시설 (항공기 식별·고도정보 등 제공)	계기착륙시설 (항공기 착륙각도 등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7월 2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코로나-19 대비하여 기관별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비치 및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 7백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 및 대응, 시설 교체 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제주남부 비행정보구역(FIR)의 항공로 음영지역 해소와 현재 운영 중인 동광 2차 감시레이더의 노후화(내구연한 2022년) 도래로 현대화 추진('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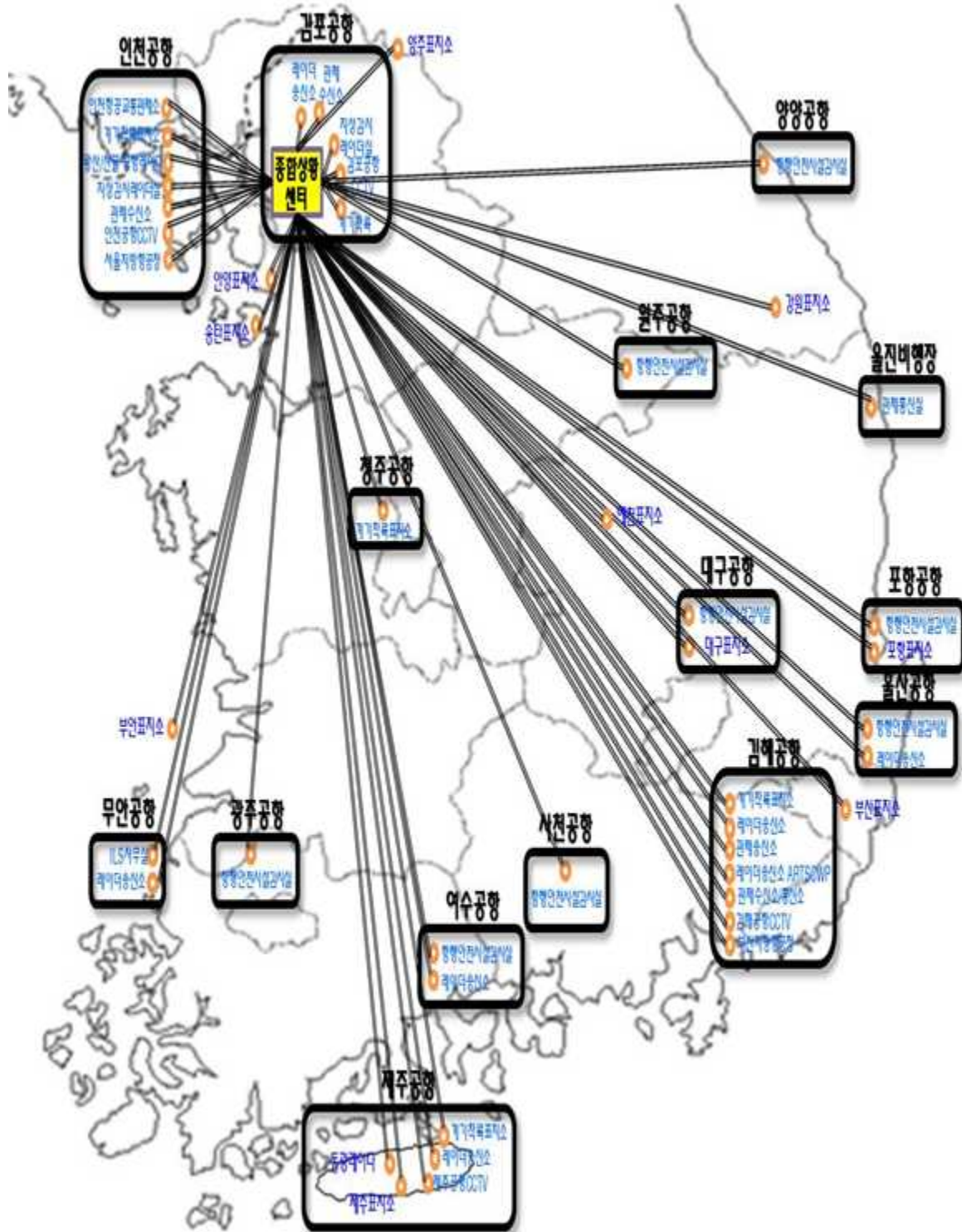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이정운 사무관(☎ 044-201-4363) 또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임수희 주무관(☎ 032-740-22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센터 내부전경



종합상황센터 운영개념



종합상황센터 시스템 연계 범위